뜨거운 여름…상큼한 유혹

빽다방·메가MGC커피 등 수박·파인애플 활용 시즌메뉴 선보여
코카콜라 제로 레몬·탐앤탐스 칼라만시레볼루션 등 한정판 출시
신세계푸드, 제스프리 협업 생크림 케이크 등 디저트 제품도 등장

유통업계가 무더위를 잊고 기분 전환 할 수 있는 상큼한 음료와 간식을 줄이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철 즐기는 새콤달콤한 과일을 활용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섰다.

지난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레몬향을 더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의 '코카-콜라 제로 레몬'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칼로리가 없는 코카콜라 제로에 과일 특유의 상큼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모델로 인기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바로잡고 있다.

탐앤탐스는 깔라만시 원액을 사용한 '깔라만시 레볼루션' 3종을 출시했다. 깔라만시를 이용해 더워진 초여름을 잊게만드는 시즌 한정판 음료다.

빽다방은 시즌 한정 메뉴로 추억의 음료 슬러시 '아이스크러시 4종(파인애플, 오렌지, 멜론, 콜라)'을 출시했다. '여름사냥'을 콘셉트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빽다방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라는 게 빽다방의 설명이다.

엔제리너스는 여름 시즌 음료 2종을 선보인다. 파인애플을 베이스로 청사과 젤리를 활용해 파인애플 섬을 표현한 '파인애플 아일랜드 스노우'와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인애플 오션에이드'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류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설빙은 농심과 협업한 신메뉴 '딸기바나나킥 설빙'을 선보인다. 신세계푸드는 글로벌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와 협업을 통해 생크림 케이크 2종을 내놨다. '골드키위 가득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생크림과 시트 사이에 키위를 층층이 쌓아 올렸고, '골키반 딸기반 생크림 케이크'는 골드키위 토핑과 함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딸기를 더해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과일 맛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신라명과의 오갓빵 브랜드는 '연유딸기크림빵'을 선보였다. 고유 레시피로 개발된 딸기크림이 함유돼 느끼하지 않고 담백함을 선사한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을 활용한 신제품도 등장했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시원수박스무디' 등 여름 시즌 한정 메뉴 4종을 출시했다. 당도가 높은 수박 원물을 그대로 갈아 넣어 본연의 맛을 살렸다.

이디야도 충남 수박을 활용한 생과일 수박주스를 출시했는데 충남에서 재배된 당도 높은 11 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생수박을 그대로 갈아 넣어 만들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 내놓은 수박주스를 재출시했다. '수박 화채 스무디'는 타피오카 펄을 수박 스무디 베이스에 넣어 수박씨를 연출하고 다채로운 과일로 토핑했다. 메가MGC커피의 여름 신메뉴 5종은 출시 이후 2주 동안 누적 판매량 80만개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빽다방은 여름 시즌에만 한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즌백 메뉴 '완전수박주스'를 재출시했다.

롯데마트는 여름철 수박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품질 강화에 나섰다. 보통 수박 입고 절차는 하우스 재배, 불량 상품 선별, 당도 및 중량 기계 선별, 무작위 샘플링 4단계로 이뤄지지만 롯데마트는 산지 재배 일지 관리, 2차 추가 선별, 물류센터 추가 검수를 추가해 7단계로 강화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31일 '28기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김영천(왼쪽 세번째) 광주신세계 관리이사와 이홍렬(왼쪽 두번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6400만원, 서구장학재단에 2000만원 등 올해 130여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 받아 연간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른 더위에 한 달 빨라진 바캉스 대전

롯데백화점 6월부터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은 6월부터 여름 바캉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매년 7월에 시작하던 여름바캉스 대전을 6월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2~6일 롯데백화점 전 점포에서 '선글라스 클리어런스' 행사를 통해 톰포드, 몽클레르,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유명 선글라스 제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아울러 점포별로 다양한 수영복 팝업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또 다음 달 1~11일 전 점포에서 '롯데 상반기 뷰티 어워즈'를 한다. 스킨케어부터 색조 화장품, 향수까지 주요 뷰티 카테고리별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상품을 선정해 롯데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준다.

행사 기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 달 2~18일 모든 점포에서 진행하는 '에어컨 페스타'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등 인기 에어컨·제습기를 단독 특별가에 선보이고 구매금액의 최대 11%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기료 걱정 더세요"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

31일까지 에어컨·냉장고 등
최대 50만원 상당 포인트 제공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자 삼성전자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를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삼성 절전가전 페스타'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가전뿐만 아니라 TV 포함 총 10개 품목·90개의 모델을 더 큰 혜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모델 또는 'AI 절약모드'를 지원하는 특별 패키지 모델을 2품목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모델별 최대 50만원 상당의 혜택(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QLED TV 55형 제품을 90만원대로 한정 판매한다.

삼성전자의 절전가전은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해준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로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로 추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절약모드로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최신 절전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나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도 실시한다.

비스포크 냉장고 1등급 전 모델을 구매하고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며, 삼성 65형 QLED 이상 TV를 구매하고 구형 TV를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증정한다.

또 이번 행사 모델 구매 후 삼성닷컴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약 1년치 전기요금인 최대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증정한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상에 관심이 높아지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절전 가전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차별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까지 갖춘 삼성 절전가전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구매해 보다 스마트한 지속가능한 일상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신세계백화점, CGV와 손잡고 MZ고객 잡는다

백화점 할인·음료권 등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영화관 업계 1위인 CGV와 고객 혜택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세계는 CGV VIP 고객에게 백화점 7% 할인과 회원 전용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 등을 제공한다. 신세계 VIP 고객은 CGV 1+1 영화 쿠폰과 콤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는 아울러 백화점 입점 CGV 상영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협업과 온라인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신세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CGV 멤버십 고객 가운데 203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백화점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대 50% 저렴하게…이마트 고객감사 행사

이마트는 다음달 2~4일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행사를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우선 냉동 군만두와 고추장, 치즈 등 23개 카테고리의 가공식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50%를 할인해 준다.

섬유유연제와 세탁세제 등 26개 생필품은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하고, 하기스 기저귀는 전 품목 '1+1'으로 선보인다.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도 특가로 내놓는다. 1~6일에는 한우 등심과 채끝을 40% 할인한다.

SSG닷컴(쓱닷컴)에서도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